



## 朴(金)堤上傳과 倭國-憂息樂의 창작배경과 관련하여

On the Biography of Bak(or Kim)jesang and Wa state-focusing on the Background of the Song Entitled Usikak

---

**저자** 신중원  
**(Authors)** Shin, Jong-won

**출처** [한국고대사탐구 14](#), 2013.8, 43-82 (40 pages)  
**(Source)**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14](#), 2013.8, 43-82 (40 pages)

**발행처** [한국고대사탐구학회](#)  
**(Publisher)**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48172>

**APA Style** 신중원 (2013). 朴(金)堤上傳과 倭國-憂息樂의 창작배경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사탐구, 14, 43-82.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9/18 11:0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朴(金)堤上傳과 倭國-憂息樂의 창작배경과 관련하여\*

신 중 원\*\*

- I. 研究 視角
- II. 史料分析
- III. 憂息樂 · 瑯述嶺祠堂의 유래
- IV. 堤上傳의 생성과 발전 -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박(김)제상 이야기는 각각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나오며 『일본서기』에도 실려 있다. 한국측 역사책에는 애국·충신의 표본으로 꼽히기 때문일 것이며, 『삼국유사』에는 그 부인 또한 열녀의 표상으로 나온다. 그는 눌지마립간(417~458)의 두 아우 복호·미사흔이 각각 고구려와 왜국에 인질로 가 있는 것을 계략과 용기를 다하여 귀국시키고, 자신은 왜국에서 죽음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부인은 제상을 기다리다 왜국이 바라보이는 치슬령의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박제상전에 따르면, 눌지마립간은 두 왕자가 이웃나라에서 돌아와 재회한 기쁨을 노래로 지었는데, 비로소 근심이 그쳤다는 뜻의 ‘憂息曲’이 그것이다. 그런데 같은 책 樂志에는 ‘憂息樂’이라 쓰고, 눌지왕 때 지은 것이라 한다. 신라 시대의 여타 음악을 보더라도 그 창작배경은 역사적 구체성을 띄고 있지만 악지는 달리 설명하고 있는 예를 흔히 보는데, 악지의 그것이 가장 사실에 가깝다고 함은 최근의 연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비로소 두 형제들과의 이별 기사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 의심이 생긴다.

이런 시각에서 사료를 검토해 보면 종래에도 지적되었던 몇 가지 의혹과 맞물

\* 이 논문은 일본 큐슈대학의 『韓國研究センター年報』13, 2013년 3월호에 일본어로 실린 것이다 약간의 보완을 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려 신라와 왜국 사이의 외교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미사흔이 왜국에 인질로 가 있는 동안에도 왜적의 침입이 잦은 점이나, 한 해에 두 나라에서 왕자를 각각 귀환시킨 제상의 영웅적 행위에 대해 가급적 긍정적, ‘합리적’ 해석을 하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연구의 대세였다. 하지만 그밖에도 미사흔이 왜나라에서 돌아올 때 박제상에 관련된 일체의 언급이 신라본기에 없는 점, 신라에서 왜병을 추격할 때 기병이 나선 점, 제상부인이 남편을 뒤쫓아 간 지역이 의외로 수도 경주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이고, 치술령에서는 동해바다가 안 보인다는 점 등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때의 왜국은 과연 현해탄을 건너 있으며, 그렇다고 하면 일본열도의 얼마만큼을 미사흔이 가 있던 나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더욱 증폭된다.

이 글은 위의 의혹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보아, 이들 不整合性を 여하히 합리적으로 해석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우식악이라는 음악이 먼저 있고, 그 배경설화라고 할까 창작배경을 일정한 역사상에 비껴 넣은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 치술령을 비롯하여 몇 가지 지명유래가 가미되었다. 이렇게 볼 때 전후 별다른 맥락 없이 나온 한 차례의 對倭 인질 사료가 제대로 해석된다.

주제어 : 박제상, 김제상, 모말, 눌지마립간(눌지왕), 복호(보해), 미사흔(미해), 모마리질지, 미질허지벌한, 우식악(우식곡), 인질, 왜국(왜나라), 구비전승, 설화, 치술령, 망부석

## I. 研究 視角

박제상 또는 김제상이라고도(『삼국유사』 나물왕김제상條. 아래 ‘김제상조’로 줄임) 하는<sup>1)</sup> 신라 上代의 충신 이야기는 千古의 귀감이 되어 우리의 고대 史書에 立傳된 이래, 조선시대에는 삼강·오륜행실도에 실리는가 하면 오늘날까지 교과서 등에 소개되는 인물이다.<sup>2)</sup> 『삼국사기』 박제상전

- 1) 논의의 편의상 박·김씨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堤上’으로 쓰겠다.
- 2) 조선시대의 문집이나 애국계몽기 때 박제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아래 ‘박제상전’으로 줄임]에서는 박제상의 다른 이름으로 ‘毛末’도 올려 놓고 있는데 이 이름은 『일본서기』권9, 신공황후 5년조에 나오는 ‘毛麻利叱智’ 그것이라 함은 익히 지적되어온 바이다.

제상의 인물과 행적이 내포하는 양면성은 間斷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양면성이란 忠節의 표본이요 한국 역사의 자랑이 곧 堤上 일대기지만, 그는 당시 신라와 왜 사이의 국력을 가늠하는 好材이기도 하여, 한국과 일본 두 나라 학계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를 조명하고 있다. 일본학계에서는 당시 신라와 왜 사이 국력의 우열을 보여주는 사료로 곧잘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sup>3)</sup> 한국쪽에서는 한국 고대사의 국제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아킬레스힘줄 같은 약점이기도 하다. 흡사한 예가 문무왕의 海中陵에 얽힌 ‘이야기’다. 이 또한 실제와는 무관한 채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sup>4)</sup>

堤上의 활약이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신라는 왜에 자기나라 왕자를 인질로 바쳐야 하는 상하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변명하거나 바로 잡기 위하여 당시 ‘인질(質)’의 성격이 과연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sup>5)</sup> 한국 학계는 적지 않은 功力을 들였다.<sup>6)</sup> 하지만 그 이전에 두어 가지 관점이

같은 엄기영의 글이 있다. 「삼국사기·삼국유사 所載 ‘박제상 이야기’의 비교 고찰, 『한국문화이론과 비평』19, 2003 ; 「‘박제상 이야기’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39, 2003.

3)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 79~81쪽.

4) 신종원, 「문무왕과 대왕암」, 『삼국유사 새로 읽기(1)』, 일지사, 2004.

5) 質의 뜻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약자가 강자에 제공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춘추시대에는 오히려 儀禮의 성격이 강하였고 이후 전국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의미가 변하고 있음을 논한 것으로는 小倉芳彦, 「中國古代の質 - その機能の變化を中心として」, 『中國古代政治 思想研究』, 青木書店, 1970이 있다. 『日本書紀』의 ‘金春秋爲質’에 대하여 直木孝次郎은 ‘諜者的 외교관’이라고(「古代朝鮮における間諜の性格」, 『古代日本と朝鮮・中國』, 講談社學術文庫, 1988, 129쪽) 했다.

6) 양기석, 「삼국시대 인질의 성격에 대하여」, 『사학지』15, 1981 ; 나행주, 「고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 신라에 있어倭는 고구려·백제와 마찬가지로 他國일 뿐이다. 신라와 왜의 관계를 후대의 한일관계로 연장·확대할 때 이미 논의는 정곡에서 벗어나 있다. 둘째, 塙上傳記 및 관련 사료의 다양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 충고는 제상 사료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많이 굴절된 형태로 전해진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야기로서의 제상 사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다. 셋째, 신라가 왜에 인질을 바칠 정도의 사건·사실을 자신들이 담담히 전승·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屈辱史觀이라고 命名할 정도의 기사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고려시대에 찬술된 책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면, 이들 史書 편찬 때 ‘남[他者]의 이야기’로서의 사료도 과감히 채택했을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 ‘이야기’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충군애국을 가르치는 교훈일 것이며, 그들은 지나간 왕조의 國格에는 그리 민감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塙上傳를 통해서 우리는 인질의 성격문제뿐만 아니라 왕권의 성장, 塙上의 家系, 지방세력의 대두나 박·석·김 三姓의 형성 등 다양한 방면의 知見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이들 연구사를 정리해 보겠다.<sup>7)</sup>

김용선은 塙上을 梁山地方의 해상세력으로 보고 王弟들을 되찾아오는 임무를 맡으면서 중앙귀족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sup>8)</sup> 이종항은 왜인을 한 반도 남부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칭으로 보아 그 일부가 九州 북부에까지 뿌리를 내렸고, 倭京의 위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操舟 기술이 없어

---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質’의 의미 - 특히 質의 파견목적을 중심으로, 『건대사학』8, 1993 등의 글이 있다.

- 7) 연구사는 신현웅이 다음 글에서 잘 정리하였다. 「박제상의 出自와 신분 문제」 『신라문화』27, 2006(a) ; 「박제상의 出自와 신분 문제(續)」 『신라문화』28, 2006(b).
- 8) 이러한 연구의 효시로서 김용선, 「박제상 小考」 『전해종 화갑기념 사학논총』, 일조각, 1979를 들 수 있다.

도 一晝夜 정도의 行舟로서 왜의 追捕를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러한 지점이란 현재의 福岡市 부근”이라고 하였다.<sup>9)</sup> 제상 사료의 ‘倭’를 北九州 일원에 근거지를 둔 세력이었다는 견해는 이후의 연구자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sup>10)</sup> 아울러 이종항은 이들 왜인이 수시로 바다를 왕래했다는 것은 당시의 항해술과 선박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면서 박제상의 설화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삼국사기의 기록대로라면 미사흔과 堤上은 가만히 있어도 바다를 건너서 신라에까지 쳐들어갔을 터인데, 그때 미사흔과 제상은 왜군의 진지에서 신라의 진지로 넘어간다면 아무런 위험 없이 미사흔의 귀국은 물론이고 제상까지도 귀국할 수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그것을 일부러 원정 중도에 있는 군영에서 성패도 확실하지 못한 탈영도 주라는 모험과 제상의 희생이라는 큰 代價를 치루면서 이를 감행해야만 했는가 말이다.<sup>11)</sup>

홍순창은 堤上傳이 4세기 후반 大和政權의 한반도 出兵說의 근거로 쓰일 수 없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하였다.<sup>12)</sup> 그는 사료의 ‘質’이 인질 즉 볼모가 아니라 하면서 설화의 구조문제라든가 성립연대 등은 고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하였다. 그는 堤上 사료는 치술신모 신앙과 堤上의 忠烈譚이 하나로 엮어진 것이고, 박제상전은 김제상조를 傳記化한 것이기 때문에 전설적인 요소가 적다고 보았다.

연민수는 반신라세력인 왜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왜의 침입에 따른 국

9) 이종항, 「미사흔이 인질로 간 倭國의 위치에 대하여」 『한국학논총』4, 1981.

10) Chizuko T. Allen, Silla's Skillful Diplomacy under King Nulchi in the Fifth Century, *The 6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2.

11) 앞 글, 22쪽.

12) 홍순창, 「김제상설화에 대한 일고찰」 『한국전통문화연구』2, 1986.

력 손실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對倭 인질외교책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러한 외교책은 실성이사금 4년(405) 왜병의 명확성 공격, 同 7년의 군영 설치로 실패로 끝났다고 보았다.<sup>13)</sup> 하지만 1회의 인질 사건이 신라와 왜와의 외교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외교적 友邦인 신라를 무슨 이유로 공격하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은 달리 없다. 그는 대체로 사료를 신빙하는 자세로서 제상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제상은 잦은 왜인과의 접촉을 통해 왜인에 정통하였고, 용기와 지략이 있으며, 해상에 밝은 해민집단의 도움을 얻어 미사흔을 탈출시켰다는 것이다.<sup>14)</sup>

김택균은 당시 동해 연안의 항해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제상을 굳이 해상세력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제상은 울산지역 해민집단의 협조를 얻어 王弟 구출에 나섰다라고 하였다.<sup>15)</sup> 그리고 堤上傳은 (昔)于老 전설과 마찬가지로 九州 지역 왕조와 신라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심하게 윤색되어 架空의 인물인 신공황후조에 실리게 되었다고 보았다.<sup>16)</sup> 『일본서기』의 신라정벌, 日本優位 사관으로 볼 때 우로나 제상 전승은 그들의 당면 과제가 일찍부터 행해졌던 ‘역사’였음을 말해주는 好材라 하였다.

木村誠은 『日本書紀』 신공황후 5년 기사의 汗禮斯伐·毛麻利叱智·富羅母智를 세 명의 이름으로 보지 않고 汗禮斯伐을 지명으로 보아, 堤上을 屈阿火村=蔚山 지방 출신 首長層[干]이라 하였다.<sup>17)</sup> 堤上은 울산·양산 지역을 지배하면서 對倭 외교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몇 명의 村干이 외

13) 연민수, 「5세기 이전 신라의 대외 관계 - 삼국사기 왜 관계 기사를 중심으로」 『일본학』8·9, 1989 ; 『고대한일관계사』, 1998. 이강래도 “미사흔의 귀국 전까지 전혀 質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았다. 「삼국사기의 왜 인식」 『한국사상사학』22, 2004 ; 『삼국사기 인식론』, 일지사, 2011, 381쪽.

14) 위의 책, 387쪽.

15) 김택균, 「삼국사기 신라의 대외관계기사 분석」 『강원사학』6, 1990.

16) 위의 글, 29쪽.

17) 木村誠, 「新羅國家生成期の外交」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1(荒野泰典 編), 東京大學出版會, 1992 ;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 2004.

교정책에 참여한 것은 그들의 공동의지를 왕에게 표명한 것으로서 영일냉수리비에서 보는 신라왕과 干支層 사이의 관계와 흡사하다고 하였다.

고관민은 제상전의 원전을 천착하여 제상의 ‘歆良州干’에 보이는 지명 ‘삼량’이 쓰인 시기는 문무왕 5년(665)~경덕왕대(742~765)이며, 관직 ‘干支’가 ‘干’으로 바뀐 시점은 550년대 이후임을 상기시키면서 원사료는 ‘歆良(城)堤上(또는 毛末)奈麻’ 정도가 될 것이라 하였다.<sup>18)</sup> 신라가 왜에 보낸 ‘質’에 대해서는, 당시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던 신라가 고구려와 적대관계에 있는 倭에도 종속될 리는 없으므로 고구려의 승인을 받았거나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신라본기에 왜의 침입 기사가 많은 것은 신라인들이 『국사』를 편찬하면서 고구려에 종속된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는 제상전의 원전은 ‘憂息曲’의 由來譚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김대문의 『樂本』 같은 것으로 상정하였다. 서기 500년을 전후한 신라의 대외관계 기사에 후대의 事情이 몇 차례나 겹쳐서 나오는 堤上傳의 原典을 추적 해보려는 태도는 바람직하다. 그 결과, 박제상전의 말미에 겨우 나타나는 우식곡 기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였다고 하겠다.

선석열은 박제상을 중앙 귀족으로 보고, 박제상전의 冒頭에 나오는 世系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紀年 조정을 한 뒤 이른바 ‘수정론’에 서서 사료를 분석하였다.<sup>19)</sup> 박제상을 신라 왕경의 骨族으로 보게 된 유력한 증거로서 ‘실성마립간은 鷄述의 아버지’라는 왕력편 기사의 ‘치술’을 박제상의 부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왕력편 사료의 ‘치술’이 반드시 여성이라는 보장도 없고, 박제상 부인의 경우는 치술령에 올라가 鷄述神母가 되었을 지언정 그 이름이 ‘치술’인지는 미지수다. 만약 ‘치술’이 人名이라면 한자

18) 고관민, 「新羅の堤上奈麻と奈勿王三子」 『東アジア研究』9, 1995 ; 『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 雄山閣, 1996.

19) 선석열, 「박제상의 出自와 관동 나라」 『경대사론』10, 1997 : 「삼라군 태수 박제상의 애국 활동」 『2012년 학술대회, 양산과 박제상』, 양산시, 2012.

로 표기된 고대 人名이 그러하듯이 同名異人일 가능성도 크다. 선석열은 자신의 판단과 조정을 근거로 서기 500년을 전후한 신라 왕실 3姓의 浮沈을 피력하였다. 이를 두고 “試論이나 假說이 될 수 있을지언정 확정적으로 단언될 문제는 아닐 듯하다.”<sup>20)</sup>고 신현웅은 논평하였다. 무엇보다 박·김 같은 성씨가 후대에 소급·부여된 것 뿐인데 堤上의 出自를 이러한 계보에서 추적하는 것은 방법론상 문제가 있다.

파사이사금 5년에 ‘朴氏貴戚’을 지방에 파견하여 州主나 郡主를 삼았다는 기사에 유의하여 그러한 실례로서 박제상 사료를 본 이는 후보돈이다. 박제상의 선조를 파사이사금이라 한 데는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sup>21)</sup> 왕경인이 지방세력화하여 실제로는 干(支)을 칭했을 것으로 보았다. 박제상전의 가계가 무언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나물왕 김제상조의 김씨 후손 說도 동등한 가치가 있다. 파사이사금 후손설에 대해서도, 박제상전 초두에 하나로 연결된 가계 기사 전체가 문제점을 드러내는 가운데 파사이사금만 신뢰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sup>22)</sup>는 지적은 받아들일 만하다.

치즈코 알렌은 박제상에 관한 세 가지 기본 사료에다 광개토왕비문까지를 아울러 보아 참신한 결론을 내렸다.<sup>23)</sup> 왜가 신라를 쳐들어 온 신묘년(391) 이래 광개토왕이 백제·왜 군사를 물리친 을해년(399)까지 신라는 고구려 대신 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따라서 왕자 미사흔을 인질로 바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미사흔이 귀국한 것은 고구려가 왜를 친 407년 이후가 될 것이며, 이것은 곧 신라가 自立하는 하나의 징표라고 보았다.

20) 신현웅, 앞의 논문, 2006(b), 289쪽.

21) 후보돈, 「朴堤上和 5세기 초 신라의 정치 동향」 『경북사학』21, 1998.

22) 신현웅, 앞의 논문, 2006(a), 224쪽.

23) Chizuko T. Allen, Prince Misahun : Silla's Hostage to Wan from the Late Fourth Century, *Korean Studies* 27, 2003.

주보돈의 설을 따라 조한정도 박제상을 삼랑주로 이주한 파사왕의 후손으로 보고, 당시 김씨 王室內 및 3姓 사이의 갈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sup>24)</sup> 제상의 妻族에 대해서는 선석열의 說에 따라 제상은 실성왕의 사위라고 하였다. 미사흔을 인질로 잡고 있던 기간에도 왜는 여전히 신라를 침략했는데, 그것은 일본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국가와 교섭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채미하의 박제상 사료를 검토하면서 주로 對倭 관계를 천착하였다.<sup>25)</sup> 그는 고구려의 영향 아래에 있는 신라가 미사흔을 왜에 보낼 리 없다고 보고, 나물왕 36년(390)에 왜가 신라에 사신을 보냈고, 신라는 왜의 요청에 따라 미사흔을 왜에 보냈다는 『삼국유사』설을 지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제상 사료를 다룬 선구 업적은 신라사회 자체 및 정치상황 파악에 진력하거나 왜와의 관계 설정에 치중한 연구로 양분된다. 그 중에서도 전자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는 사료를 망라하여 거의 모든 가능성이 타진되고, 그 결론에 따라 박제상전이나 김제상조 가운데 어느 하나가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사료의 우열을 논하였다. 따라서 제상이 지방출신이라거나 원래 왕경 출신이라는 주장, 그의 성이 박씨거나 김씨라는 주장에는 각각 그 나름의 근거가 있지만 어느 하나도 결정적이지는 않다. 한편 『일본서기』 기사에는 堤上의 관직명이 없는 점,<sup>26)</sup> 스토리가 소박한 점<sup>27)</sup> 등을 들어 일본인 연구자는 『일본서기』쪽을 원형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 말고도 史書의 편찬 시기로 보아서도 그것은 일면 타당하다.

24) 조한정, 「박제상과 5세기 초 신라 정치」, 『동아시아고대학』25, 2011.

25) 채미하, 「堤上의 미사흔 구출 과정을 통해 본 신라의 對倭 관계」, 『신라사학보』 25, 2012.

26) 木村誠, 앞의 책, 2004, 322쪽.

27) 木下禮仁, 「堤上傳承考」,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95쪽.

고대사 연구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때 흔히 사료의 한계나 부족을 핑계대곤 한다. 그러나 제삼 연구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료 자체의 설화적 성격 때문에 의논이 분분하게 되었다. 그것은 어떠한 사실이나 사건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점차 사실과 멀어지게 되는 시간과 전달 차원이 아니라 기술된 ‘사건’ 자체를 취사선택하여 그 所以然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태도를 말한다. 堦上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는 배경에는 이를 말하는 사람의 지식이나 의도가 그만큼 다르고 編史者의 판단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이 풀어놓는 이야기가 지나쳐 요령부득이거나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난맥상에서 벗어나는 방안으로 “어느 사료든 설화요, 후대의 윤색이 많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무리하게 채택할 필요는 없다.”<sup>28)</sup>는 태도는 적절하다고 하겠다.

설화라고 함은 그것을 그대로 사료로 쓸 수 없다는 뜻이고, 윤색이라 함은 어떠한 의도·목적이 내재된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선학들의 연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도출되기도 하였지만 단편적인 데 그쳤을 뿐 설화 자체의 형성과정이라든가 설화 안에서의 구조적 연결 같은 데까지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한편 설화분석 내지는 그 의미파악에 진력한 문학·설화 쪽의 연구도 역사학계 못지 않게 많은데 대개는 제삼전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것이 해당 시대에 주는 메시지 즉 의미파악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소개·참고할 것이다.

이 글은 위의 선구 업적을 참고하면서 對倭關係에서 일회뿐인 인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료고증과 분석을 통하여 기왕의 논의에서 비켜간 문제를 다루어 보려는 것이다.

28) 木村誠, 앞의 책, 2004, 321쪽.

## II. 史料分析

### 1. 『삼국사기』 신라본기 및 樂志

나물이사금. 9년(364) 여름 4월에 왜의 군사가 대거 이르렀다. 왕이 듣고서 대적할 수 없을까 두려워 풀로 허수아비 수천 개를 만들어 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려서 토함산 아래에 나란히 세워 두었다. 그리고 용맹한 군사 1천 명을 斧峴의 동쪽 들판에 숨겨놓았다. 왜인이 자기 무리가 많음을 믿고 곧바로 나아가자 숨어 있던 군사가 일어나 불의에 공격하였다. 왜군이 크게 패하여 달아나므로 추격하여 그들을 거의 다 죽였다.

37년(392) 봄 정월에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내왔다. 왕은 고구려가 강 성하였으므로 이찬 大西知의 아들 實聖을 보내 불모로 삼았다.

38년(393) 여름 5월에 왜인이 와서 金城을 에워싸고 5일 동안 풀지 않았다.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나가 싸우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지금 적들은 배를 버리고 [육지] 깊숙이 들어와 死地에 있으니 그 칼날을 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성문을 닫았다. 적이 아무 성과없이 물러가자 왕이 용맹한 기병 200명을 먼저 보내 돌아가는 길을 막고, 보병 1천 명을 보내 獨山까지 추격하여 양쪽에서 공격하여 크게 쳐부수었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46년(401) 가을 7월에 고구려에 불모로 가 있던 實聖이 돌아왔다.

실성이사금. 원년(402) 3월에 왜와 우호를 통하고, 나물왕의 아들 未 斯欣을 불모로 삼았다.

4년(405) 여름 4월에 왜의 군사들이 와서 明活城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왕이 기병을 이끌고 獨山의 남쪽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두 번 싸워 그들을 격파하여 3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6년(407) 봄 3월에 왜인이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여름 6월에 또 남쪽 변경을 침범하여 100명을 약탈해 갔다.

7년(408) 봄 2월에 왕은, 왜인이 對馬島에 병영을 설치하고 무기와 군량을 쌓아 두고서 우리를 습격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서 그들이 일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예군사를 뽑아 적의 진영을 격파하고자 하였다. 서불한 미사품이 말하였다. “臣이 듣건대, 무기는 흉한 도구이고 싸움은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큰 바다를 건너서 다른 사람을 정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기지 못하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으니, 험한 곳에 의지하여 關門을 설치하고 그들이 오면 막아서 쳐들어와 어지럽힐 수 없게 하다가 유리할 때 나아가 그들을 사로잡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남을 유인하지만 남에게 유인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왕이 그 말에 따랐다.

11년(412) 나물왕의 아들 卜好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

14년(415) 가을 7월에 穴城의 들판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였다. 왕이 금성 남문에 거둥하여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8월에 왜인과 風島에서 싸워 이겼다.

눌지마립간 2년(418) 봄 정월에 ... 왕의 동생 卜好가 고구려에서 나마 鬲上과 함께 돌아왔다. 가을에 왕의 동생 美斯欣이 왜로부터 도망쳐 돌아왔다.

위 사료를 보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수궁이 간다. 신라는 고대국가의 성립이 고구려·백제보다 늦어 약소국임을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고구려로부터는 외교나 문화적으로도 다대한 영향을 받아왔다.<sup>29)</sup> 4, 5세기 신라 왕실에 고구려가 깊이 간여했음은 유물로도 증명되는데 경주 호

29) 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고대편)』, 일조각, 1982, 150~151쪽.

우충의 壺釘가 그러하다.<sup>30)</sup> 이미 실성왕이 왕자 시절 고구려에 인질로 가 있다가 돌아와 왕위에 오른 예로 보아, 이후 고구려에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는 기사에 달리 의혹을 가질 이유는 없다.

신라와 왜의 관계는 402년에 미사흔을 볼모로 삼은 기사 이전에는 나물마립간 9년(364)에 왜병이 來襲한 기사, 393년에 왜인이 금성을 에워쌌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 9년 뒤에 신라는 미사흔을 왜에 볼모로 보내고 있다. 실성이사금 즉위년에 왜와 通好하면서 보낸 ‘質’이란 왜와의 관계 때문이라기보다는 신라 국내의 문제이거나 ‘質’의 성격이 통념과 다를 여지가 있다. 또 하나의 의문은 미사흔이 볼모로 가있는 동안 相對 나라를 네 차례나(405, 407, 408, 415년) 공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의 공격을 사실로 받아들여려면 빈번히 쳐들어온 倭는 인질을 잡고 있는 왜와는 다른 집단으로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무리로 볼 수 밖에 없다.

왜에 인질을 보낸 10년 뒤에 신라는 왕자 복호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다. 그리고 6년 뒤에 박제상은 복호를 고구려로부터 구출해 오고, 같은 해 미사흔도 왜로부터 도망쳐 왔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미사흔 귀국 기사에 박제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신라본기와 열전은 相補 관계에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삼국사기』 편찬자가 조정을 한 것이라고도 한다.<sup>31)</sup> 그러한 예가 『삼국사기』의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박제상전과 김제상조에서는 堤上이 왜국에서 죽임을 당했으므로 귀국 기사 위주로 본다면 本紀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의문이 있다. 첫째, 왜국에서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30) 1946년에 발견된 靑銅壺로서 그 바닥에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는 명문이 있어 장수왕 3년(415)에 고구려에서 가져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재원, 『호우충과 銀鈴塚』, 국립박물관, 1948 ; 『호우충 은령총, 발굴60주년 기념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6.

31) 고관민, 앞의 책, 1996, 97쪽.

적어도 그의 죽음 정도는 언급하지 않았을까? 둘째, 위 본기의 서술 분위기로 보아 이 해에 고구려에서 돌아온 박제상의 죽음을 상정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 셋째, 아무리 영웅적 忠君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한 해에 적대적인 두 나라로부터 왕자를 빼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미사흔의 對倭 볼모 사실을 의심하는 연장선상에서 그의 귀국 또한 敘事的 구성의 협의가 짙다. 오히려 整合的으로 볼 때 미사흔의 入質이 부정될 때 비로소 이 죽음 倭의 對新羅 공격이 수궁된다.

다음은 『삼국사기』 악지를 보겠다.

憂息樂은 놀지왕 때 지은 것이고<sup>32)</sup>

근심을 덜었다는 ‘우식악’의 작곡배경에 대해서는 아래 『삼국사기』 열전에 자세히 나온다.

## 2. 『삼국사기』 열전, 박제상

박제상[또는 毛末이라고도 하였다.]은 시조 혁거세의 후손이며, 파사 이사금의 5세손이다. 할아버지는 阿道 갈문왕이고, 아버지는 파진찬 勿品이다. 제상은 벼슬길에 나가 敵良州干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실성왕 원년 임인(402)에 왜국과 강화하였는데, 왜왕이 나물왕의 아들 미사흔을 볼모로 삼기를 청하였다. 왕은 일찍이 나물왕이 자기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것을 원망하여, 그 아들에게 유감을 풀고자 하였으므로 거절하지 않고 보냈다. 또 11년 임자(412)에는 고구려가 역시 미사흔의 형 복호를 볼모로 삼고자 하였으므로 대왕은 또 그를 보냈다. 놀지왕이 즉위하자 말을 잘하는 사람을 구하여 가서 [두 아우를] 맞이해 올 것을 생각하고 있던 마, 水酒村干 伐寶靺과 一利村干 仇里酒, 利伊村干 波老 세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불러서 물었다. “나의 동

32) 憂息樂 訥祗王時作也

생 두 사람이 왜와 고구려 두 나라에 볼모가 되어 여러 해가 되었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형제의 정이라서 그리운 생각을 억제할 수 없소. 제발 살아서 돌아오게 해야겠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세 사람이 똑같이 대답하였다. “신들은 삼량주간 제상이 성격이 강직하고 용감하며 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전하의 근심을 풀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 생략- 이에 죽기를 맹세하고 처자도 보지 않고 栗浦에 다다라 배를 띄워 왜로 향하였다. **그 아내가 들고 포구로 달려가서 배를 바라다보며 대성통곡하면서** “잘 다녀오시오.” 하였다. -중간 생략- 제상이 곧바로 왜국으로 들어가서 마치 배반하여 온 자와 같이 하였으나 왜왕이 의심하였다. 백제인으로서 전에 왜에 들어간 자가 신라가 고구려와 더불어 왕의 나라를 도모하려 한다고 참소하였으므로, 왜가 드디어 군사를 보내 신라 국경 밖에서 순회 정찰케 하였다. 마침 고구려가 쳐들어와 왜의 순라군을 잡아 죽였으므로, 왜왕은 이에 백제인의 말을 사실로 여기었다. 또한 신라왕이 미사흔과 제상의 가족을 옥에 가두었다는 말을 듣고 제상을 정말 배반한 자로 여기었다. 이에 [왜왕은] 군사를 보내 장차 신라를 습격하려 하였는데 겹하여 제상과 미사흔을 장수로 임명하는 한편 향도로 삼아 바다의 높은 섬에 이르렀다. -중간 생략-[제상이] 밖으로 나오자, 미사흔이 도망한 것을 알고 드디어 제상을 결박하고, 배를 달려 추격하였으나 마침 안개가 연기처럼 자욱하고 어둡게 끼어 멀리 바라볼 수가 없었다. 제상을 왜왕의 처소로 돌려보냈더니, 그를 木島로 유배 보냈다가 곧 사람을 시켜, 섬에 불을 질러 전신을 불태운 후에 목 베었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해 하고, 대아찬을 추증하였으며, 그 가족에게 후히 물품을 내리었다. 그리고 미사흔으로 하여금 제상의 둘째 딸을 맞아 아내로 삼게 하여 보답하였다. 이전에 미사흔이 돌아올 때 [왕은] 六部에 명하여 멀리까지 나가 맞이하게 하였고, 만나게 되자 손을 잡고 서로 울었다. **마침 형제들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마음껏 즐길 때 왕은 노래와 춤을 몸소 지어 자신의 뜻을 나타냈는데, 지금 향악의 憂息曲이 그것이다**〔三國史記〕권45, 열전5, 朴堤上).

왜와 고구려에 각각 인질로 보낸 연대는 신라본기와 일치한다. 인질 운영의 행태로 보아서는 401년 왕자 실성이 고구려에서 돌아오고 그 이듬

해에 실성을 대체하여 신라의 왕자가 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성의 귀국 뒤 11년만에 복호가 고구려에 볼모로 간다. 그 사이(402)에 미사흔을 왜에 볼모로 보내고 있는데 402년 전후 그럴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라·왜 사이의 알력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없다고 함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402년의 入貢만을 사실로 본다면 그것은 미사흔의 入倭가 아니라 복호가 고구려에 인질로 갔다는 것의 와전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본기와 열전의 차이는 박제상의 활약이 열전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後者는 한 인물에 대한 전기이므로 주인공의 활약이 증폭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만큼 사실에서 멀어져 인물전설 즉 문학화되어 간 점도 인정해야 한다.

우식악을 ‘우식곡’으로 쓴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sup>33)</sup> 열전에서는 그 歌舞를 놀지왕 자신이 지었다고 한 점이 다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박제상전이 상당히 설화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를 『삼국사절요』 권5에서는 놀지왕 2년 가을 기사에 신고 ‘王自作憂息曲’이라 하여 열전을 따르고 있다. 『삼국사기』 내용끼리의 차이는 표1과 같다.

〈표 1〉 『삼국사기』 박제상 관련 史料間의 차이

	본기		열전	악지
박제상	복호	고구려에서 박제상과 귀국	左同	
	미사흔	倭國에서 도망쳐 오다	박제상이 倭國에서 귀환시킴	
妻			“가족에게 厚賜하다”	

33) 『증보문헌비고』 권106, 樂考, 俗部樂, 憂息樂條를 보면 ‘憂息曲’은 俗稱이라고 하였다(俗謂之憂息曲).

딸		둘째딸이 미사흔의 妻됨	
憂息曲(樂)		눌지왕 自作	눌지왕 때 지음

### 3. 『삼국유사』 奈勿王金堤上條

나물왕[那密王이라고도 한다.] 김제상

제17대 나밀왕 36년 경인(390)에 왜왕이 사신을 보내 와서 이르기를 “우리 임금의 대왕께서 신성하다는 말을 듣고 신 등을 시켜 백제가 지은 죄를 대왕에게 아뢰게 하는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대왕께서는 왕자 한 분을 보내어 우리 임금에게 성심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라 하였다. 이에 왕은 셋째 아들 美海[未吐喜라고도 한다]를 왜국에 보냈는데 이때 미해의 나이가 열 살이었다. 말과 행동이 아직 익숙지 않았으므로 內臣 朴娑覽을 부사로 삼아 왜국에 보냈다. 왜왕이 이들을 억류하여 30년 동안이나 보내지 아니하였다. 눌지왕 3년 기미(419)에 이르러 고구려 장수왕이 사신을 보내 와서 이르기를 “우리 임금님께서 대왕의 아우 보해가 지혜와 재주를 갖추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여 특별히 소신을 보내어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여 이로 인해 화친을 맺기로 하고 아우 보해에게 명하여 고구려로 보내는데, 이때 내신 金武諤을 보좌로 하여 보냈다. 장수왕도 또한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눌지왕 10(9)년 을축(425)에 왕이 친히 여러 신하와 나라 안의 여러 호협한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는데, 술이 세 순배 돌게 되자 모든 음악이 시작되었다.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신하에게 일러 말하기를 “-중간 생략-만일 두 아우를 만나 함께 선왕의 사당을 보게 될 수만 있다면 나라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려 하오. 누가 능히 이 계책을 이룰 수가 있겠소.”라고 하였다.-중간 생략-“신들의 생각으로는 敵羅郡 太守로 있는 堤上이 가할까 합니다.”-중간 생략-눌지왕은 보해를 보자 미해가 더욱 생각나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슬펐으므로-중간 생략-이 때 제상은 이 말을 듣고 두 번 절한 다음 왕에게 다짐하고 말에 올라타 집에 들르지도 않고 달려 바로 栗浦의 해안가에 이르렀다. 제상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 울포에 이르렀으나-중간 생략-그는 왜국

에 도착하여 거짓으로 꾸며 말하기를 “계림왕이 아무런 죄도 없이 제 아버지와 형을 죽였으므로 도망하여 이곳에 이른 것입니다.” 하니 왜왕은 이 말을 믿고 제상에게 집을 주어 편안히 머무르게 하였다. 이 때 제상은 항상 미해를 모시고 해변에 나가 놀았다. 그리고 물고기나 새와 짐승을 잡아서 때면 왜왕에게 바쳤다. 왜왕은 매우 기뻐하여 조금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제상이 말하기를 “지금 이 떠날 만합니다.” 하자 미해가 이르기를 “그러면 같이 갑시다.” 하였다. 제상이 “만일 신이 같이 떠난다면 왜인들이 깨닫고 추격할까 염려됩니다. 바라건대 신은 이 곳에 남아 그들이 추격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했다.-중간 생략-이 때 계림사람 康仇麗가 왜국에 와 있었는데 그로 하여금 모시게 하여 미해를 보내었다.-중간 생략-[제상]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미해공은 떠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라고 하였다. 좌우 사람들이 왜왕에게 달려가 이를 고하자, **왕이 기병을 시켜 그를 쫓게 하였으나**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에 제상을 가두어 두고-중간 생략-[왜]왕이 노하여 제상의 발 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베어 그 위를 걸게 하였다. 지금 갈대의 붉은 빛깔이 나는 것은 제상의 피라고 한다.-중간 생략-왜왕은 제상을 굴복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木島라는 섬에서 불 태워 죽였다. 미해는 바다를 건너와서 강구려를 시켜 먼저 나라 안에 사실을 알렸다. 놀지왕은 놀라고 기뻐서 백관들에게 명하여 屈歇驛에서 맞이하게 하였고 왕은 아우 보해와 더불어 南郊에서 맞이하였다. 대궐로 맞아들여 잔치를 베풀고 국내에 대사명령을 내리고 **제상의 아내를 國大夫인으로 봉하고, 그의 딸을 美海公의 부인으로 삼았다.** -중간 생략- 처음 제상이 출발하여 떠날 때에 제상의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뒤를 쫓았으나 따라가지 못하고 望德寺 문 남쪽의 모래밭에 누워 길게 울부짖었다. 그런 까닭에 그 모래밭을 長沙라고 하며, 친척 두 사람이 그 부인의 겨드랑이를 붙들고 집에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부인이 두 다리를 뻗쳐 일어서지 않으려 했다. [이에] 그 땅을 伐知旨라 불렀다. 오래된 뒤에 도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는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세 딸을 데리고 鵝述嶺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부인을] 鵝述神母라고 하는데 지금도 사당이 있다.

김제상조의 불모 연대는 『삼국사기』와 다르다. 그중에서도 미해[미사

혼]의 對倭 倂견 기사에 대해 논란이 많다. 연구자의 대부분은 『삼국사기』 기록을 받아들여 402년에 백제와 왜 사이의 군사협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외교전략으로 보는 데 반해, 재미하는 김제상조를 받아들여 고구려 및 그에 동조하는 세력에게 소외되었던 나물왕이 왜와 군사협력을 구축하여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sup>34)</sup>

주보돈은 미해[미사흔]가 倭에 入質한 시기가 390년인 것은 왕자 시절 실성이 고구려에 倂견된 시기를 혼동한 것이며, 그것은 이들 왕자가 실성 이사금의 私感에 의해 보내졌으므로 미사흔의 倂견 시기는 실성이사금 때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한다.<sup>35)</sup> 어쨌든 390년 즈음에 신라와 왜 사이에 이렇다 할 사건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390년 인질에 대한 이러한 분석에 따른다면 신라 왕자가 고구려에 인질로 간 것이 왜의 인질로 탈바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제상조의 서사구조를 보도록 하겠다. 박제상전에서 음악 우식악이 大尾를 장식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제상조에서도 그러한 광경이 보인다. 다만 눌지왕의 두 아우가 고구려·왜 두 나라에 가 있는 상태에서 벌인 잔치는 웬지 그 시기가 잘못된 듯 보인다. 아마도 그 음악의 이름과 연주 시기가 잊혀진 상태에서 연회만 기억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밖에도 복호를 고구려에서 빼내 오는데 박제상전에서는 별다른 계략을 쓰지 않고 고구려왕에게 호소만 한 점, 김제상조에서는 갈대의 빛이 붉은 이유의 유래담이 덧붙여 있는 점 등이 다르다.

김제상이 왜나라로 갈 때의 항구 ‘栗浦’가 보이고, 남편이 탄 배를 쳐다만 보는 김제상 부인의 묘사에서 그가 동해를 건넌을 정황에 대하여 달리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김제상조의 끝 부분을 보면 그가 왜나라로 떠나고 부인이 쫓아온 지역은 지금의 경주 배반동에 있는 망덕

34) 재미하, 앞의 논문, 2012, 17쪽.

35) 주보돈, 앞의 논문, 1998, 836쪽.

사·長沙·지벌포 등 왕경 경내를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명백히 상충되는 앞뒤의 지역을 보면서 우리는 김제상 이야기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변용·개작을 거쳤는데 그 흔적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전후를 살펴보면 ‘처음[初]’이라고 밝힌 경주 일원 이야기가 먼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 신라인이 지칭하고 인식했던倭는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바다가 보이는 지역이 아닐 수 있다.<sup>36)</sup> 후대에 왜=일본의 존재나 위치가 명확히 인식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건의 배경 지역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간취된다. 이종항은 망덕사를 울산에 있는 망해사로 고쳐 보았는데<sup>37)</sup> 위에서 말한 사료의 이중성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더욱 명쾌한 지적은 미해의 도주를 알고 추격하였다는 병사는 水軍이 아니라 騎兵이라는 사료를 볼 때 왜나라가 일본열도에 있다고 볼 근거를 잃고 만다는 점이다.<sup>38)</sup>

다른 하나 파생되는 의문은, 그러면 미해는 과연 왜나라에 갔던가 하는 점이다. 박제상전을 검토하면서 제기한 바 있지만, 신라의 어느 충신이란 해에 두 왕자를 각기 다른 나라에서 빼왔다는 데 대한 의혹이다.<sup>39)</sup> 아무래도 미해[미사흔]는 복호[보해]에 딸려서 이야기된 듯하다. 그것은 우식약과 관련하여 근심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 노래를 짓게 된 절실함을 설정한 것 같다. 지금까지 미해의 渡倭에 대하여 정면으로 의심을 제기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사실일 가능성에 대하여 고관민은 다음과 같

36) 村上四男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설화에 보이는 왜국은 의외로 신라 가까이 있었던 것 같다” 『堤上傳をめぐって - 新羅の建國初期における對外關係の一齣』 『한국문화』4 - 12, 1982, 34쪽.

37) 이종항, 앞의 논문, 1981, 25쪽.

38) 井上秀雄, 「삼국유사와 일본 관계」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48쪽.

39) 고구려본기 기사와의 대조를 통해 복호의 귀환 시기는 놀지왕 9년(425)이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타당하다고 보는 다음 글이 있다. 장창은, 「신라 놀지왕대 고구려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33, 2004, 224~225쪽.

이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광개토왕이 영락 10년(400)에 임나가라 從拔城을 점령한 사실을 들어, 신라가 고구려·왜와 접촉하고 아마도 堤上이 고구려 군대의 선봉에 서서 왜 군사에 대처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sup>40)</sup> 금석문 자료까지 원용하여 제상 사료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라 하겠으나, 한 인간을 영웅시한 후대의 傳聞을 가지고 추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래 신라 왕자들의 대외 파견을 연대별로 일별해 보겠다.

〈표 2〉 신라 上代 왕자들의 이웃나라 파견 연대

왕대	서기	내 용	전 거
나물왕 36	390	美海가 倭에 파견됨	『삼국유사』
나물왕 37	392	實聖이 高句麗에 파견됨 (†)	『삼국사기』
나물왕 40	401	實聖이 돌아옴	『삼국사기』
실성왕 1	402	美斯欣이 왜에 파견됨	『삼국사기』
실성왕 11	412	卜好가 고구려에 파견됨 (†)	『삼국사기』
눌지왕 2	418	卜好와 美斯欣이 돌아옴	『삼국사기』
눌지왕 3	419	寶海가 고구려에 파견됨	『삼국유사』
눌지왕 9	425	寶海와 美海가 돌아옴	『삼국유사』

(†) 윗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추정

『삼국사기』에서는 사료간에 차이가 있어 미사흔이 自力으로 귀국했을 소지를 남기고 있으나 김제상조에서는 미해가 전적으로 김제상의 患直에 의존하고 있어 堤上傳이 점차 定型化되어 감을 본다. 이들 堤上傳의 정형이란 박제상전이나 김제상조에 표현의 차이나 강약이 있을 뿐 마찬가지로 눌지왕의 형제들이 제상의 활약으로 모두 만나게 되어 잔치를 열었다는 해피엔딩 스토리다. 그런데 김제상조에서는 악곡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전후 두 차례의 잔치가 베풀어졌다.

40) 고관민, 앞의 책, 1996, 90~91쪽.

박제상전은 우식곡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물이 궁중음악이며, 이 계통의 전승은 왕실을 중심으로 수도 경주지방에 내려오는 것이라 보아도 좋다. 이에 비하여 김제상조의 말미는 치술령을 배경으로 전해지는 지방설화로서 그 증거물은 치술령 사당이 되며, 이밖에도 지명유래 등이 이야기를 실재했던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들 증거물 이야기는 後日譚의 성격이 농후한데 후일담 직전의 기사는 김제상의 두 번에 걸친 忠君 행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해피엔딩 스토리, 즉 궁정에 불러들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음악 연주는 이 단계에 비로소 어울린다. 그 뒤 김제상의 妻를 ‘國大夫人’으로 책봉하고, 몇 째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딸을 미혜[미사흔]의 부인으로 삼았다.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이런 대접을 받은 김제상 부인이 세 딸과 함께 치술령에 올라가 울다가 神母가 되었다는 후일담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후일담이라면 사건이 일단락 지워진 뒤 박제상의 경우 자신은 대아찬으로 추증되고, 그 딸이 미사흔의 부인이 되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 마무리에 어울리는 말이다.<sup>41)</sup> 김제상조에서 김제상 부인이 나중에 받게 된 예우와 치술령산신 이야기는 서로 모순되므로 후일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다른 이야기의 중첩이다. 이러한 점은 박제상이 왜나라로 떠날 때의 배경지명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듯이 어느 한 쪽은 사실로부터 동떨어진 이야기가 된다. 김제상조 스토리의 本流와 후일담을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김제상조의 二重性

		一代記	後日譚
金提上	보해	고구려에서 김제상과 귀국	

41) 고관민도 이를 ‘후일담’이라고 하였다. 앞의 책, 1996, 84쪽.

	미해	김제상이 왜국에서 귀환시킴
妻	國大夫人으로 책봉됨	남편을 기다리다 神母 됨
딸	미해의 妻 됨	세 딸 모두 神母와 함께 山神됨
	잔치 베품	神堂 생김

둘째는 ‘국대부인’의 용어 문제다. 이는 고려 문종(1019~1083) 때 정한 外命婦의 품계로서 남편이나 아들이 부원군·국상 등의 높은 관직에 오른 여인들이 받는다. 시대상으로 김제상 부인이 이 작호를 받을 리는 없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나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후일담에서 김제상의 부인이 치술령 神母가 되어 그 사당이 있다고 하였으니 치술령의 女(山)神으로 김제상부인이 모셔졌고 그 神位가 ‘000國大夫人’이었던 모양이다. 名山大川에 작호를 내리는 것은 고려 제사제도의 일환으로서 목종 즉위년(997)에 국내의 신들에게 勳號를 사여한 이래 고려말까지 지속적으로 행하였다.<sup>42)</sup> 그것은 自然神에게도 왕 이하 公卿大夫의 경우 처럼 의인화하여 封爵을 주는 것으로서 ‘국대부인’은 그 신격이 여성일 때에 해당된다. 고려말 순창의 「성황대신사적」에서 성황신을 夫婦 합칭하여 ‘淳昌城隍大夫三韓國大夫人’이라고 쓴 데서 이러한 예를 잘 볼 수 있다.<sup>43)</sup>

#### 4. 『日本書紀』 神功皇后 5년조

5년 봄 3월 계묘삭 기유일에 신라왕은 汗亂斯伐·毛麻利叱智·富羅母智 等を 보내어 조공하고, 앞서의 인질 微叱許智伐 等を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에 許智伐 等を 피어 거짓으로 고향하게 하였다.

42) 김기덕, 「고려시대 성황신에 대한 봉작과 순창의 「성황대신사적」 현판의 분석」 『역사민속학』7, 1998, 18쪽.

43) 신종원, 「설공검 - 순창의 성황대왕」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사신 汗禮斯伐·毛麻利叱智 등이 臣에게 告하기를 ‘우리 왕은 臣이 오래 돌아오지 않으므로 처자를 모두 중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원컨대 잠시 본토로 돌아가 眞否를 알고자 합니다.” 황태후는 허락을 하면서 葛城襲津彦을 딸려보냈다. 같이 對馬에 이르러 鉏海의 水門에 묵었다. 그때 신라 使者 毛麻利叱智 등은 배와 鬻사람을 나누어 微叱旱岐을 태워 신라로 도망시켰다. 그리고는 풀로 인형을 만들어 微叱許智의 자리에 두고 거짓으로 病者 행색을 만든 뒤 襲津彦에게 告하였다. “微叱許智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襲津彦은 사람을 시켜 간병하게 하였다. 곧 속은 것을 알고, 신라 사신 셋을 잡아 나무통에 넣고 불태워 죽였다. 곧 신라로 가서 踏鞬津에 진을 치고 草羅城을 함락시키고 돌아왔다. 이때의 포로가 지금의 桑原·佐糜·高宮·忍海 도합 네 邑 漢人의 始祖가 된다.<sup>44)</sup>

박제상전에서 堤上을 다른 이름으로 毛末이라고도 한다 하였는데 神功紀 5년조의 毛麻利叱智가 곧 이 계통의 표기다. 倭에 인질로 와 있던 신라사람의 이름 微叱許智伐旱이 미사흔임은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측 사료와는 달리 神功紀에서 毛麻利叱智는 신라 사신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다. 한국측 사료에 堤上만 부각된 것은 신라에서 堤上의 후손이 번성하였고, 그를 선조로 모시는 씨족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신라 사신이 왜나라에 와서 奸計를 써 신라 왕자를 빼오고 자신은 화형 당했다는 줄거리는 모두 비슷하다. 가장 큰 차이라면 神功紀 5년조에는 毛麻利叱智 부인이 등장하지 않는 점이다.

44) 五年 春三月癸卯朔 己酉 新羅王遣汗禮斯伐·毛麻利叱智·富羅母智等朝貢 仍有返先質微叱許智伐旱之情 是以 詔許智伐旱 而給之曰 使者汗禮斯伐·毛麻利叱智等告臣曰 我王以坐臣久不還 而悉沒妻子爲孥 冀蕘還本土 知虛實而請爲皇太后則聽之 因以 副葛城襲津彦而遣之 共到對馬 宿于鉏海水門 時新羅使者毛麻利叱智等 竊分船及水手 載微叱旱岐 令逃於新羅 乃造芻靈 置微叱許智之床 詳爲病者 告襲津彦曰 微叱許智忽病之將死 襲津彦使人令看病者即知欺 而捉新羅使者三人 納檻中 以火燒而殺 乃詣新羅 次于踏鞬津 拔草羅城還之 是時俘人等 今桑原·佐糜·高宮·忍海 凡四邑漢人等之始祖也(권9)

동일한 ‘史實’이 신라와 일본 두 나라에 모두 전해지는 것은 이들 나라에서 각각 전승·채록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神功紀 5년조의 말미를 보면 이 條는 4邑漢人 선조의 渡來傳說로도 보이는데, 원래 별개의 件인 毛麻利叱智 사건과 4邑漢人 선조 이야기를 결합시킨 것이라고 한다.<sup>45)</sup> 이 둘의 관계 여부는 차치하고, 기사가 암시하는 바는 한 무리의 신라인이 건너왔고, 그들과 毛麻利叱智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이 사건이 신라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된다. 이 밖에도 微叱許智伐旱의 官位名에 신라의 借音訓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미사흔의 史傳은 신라 문헌에 의거해 『日本書紀』 撰者가 채용”했다고<sup>46)</sup> 함은 충분히 수긍된다. 神功紀 5년조는 그것이 실린 史書 『日本書紀』가 『삼국사기』·『삼국유사』보다 오래되었다는 장점은 크지만 역시 堤上傳의 한 各篇[version]에 불과하며, 그 특징은 倭地에서 왜인의 시각으로 記述되었다는 점이다. 神母祠나 망뚫돌이 없는 고장에서 堤上夫人의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신공황후 5년조의 毛麻利叱智 기사를 살펴보자. 이것이 堤上 사료 가운데 가장 원형에 가깝다 함<sup>47)</sup>은 일리가 있다. 그 이유로는 使者의 이름이 모두 실려 있고, 설화부분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러한 단순비교의 위험성도 없지 않다. 편년체의 『일본서기』와 열전 형식의 堤上傳과는 애초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일본서기』에 비해 고려 중·후기에 편찬된 史書의 출현시기도 毛麻利叱智 기사 的 優位를 말해주고는 있으나 한편 堤上傳에는 그의 職名이 남아 있다. 毛麻利叱智 기사에서는 일본인들의 관심사에 따라서인지 堤上의 在倭 사적만 싣고 있으나 그의

45)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吉川弘文館, 1962, 86쪽.

46) 윗 글, 83쪽.

47) 木下禮仁, 「五世紀以前の倭」 『日本書紀と古代朝鮮』, 1993, 339쪽; 木村誠, 「新羅國家生成期の外交」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 2004, 322쪽.

주요 치적은 오히려 對高句麗 활동이다.

### Ⅲ. 憂息樂·鵝述嶺祠堂의 유래

『삼국사기』 樂志에서는 憂息樂을 “놀지왕 때 지은 것”이라 한 데 반해 박제상전에서는 “놀지왕 자신이 지었다.”라고 하여 설화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紀傳體 史書 篇目的 성격상 객관적 概觀과 나열 위주인 志보다는 어느 인물의 생애를 그리는 열전이 과장이나 왜곡이 심한데 우리는 그러한 예를 『삼국사기』 김유신전에서 잘 볼 수 있다. 악지가 비교적 공정하고 사실 위주임은 다음 예를 보아도 수긍된다.

鄉三竹도 역시 신라에서 기원하였으나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 수 없다. 古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다. “신문왕 때 동해안에서 홀연히 한 작은 산이 나타났는데 형상이 거북의 머리와 같았고, 그 위에 한 줄기의 대나무가 있어서 낮에는 나뉘어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베어다가笛을 만들고 이름하여 萬波息이라고 하였다.” 비록 이러한 설이 있으나 괴이하여 믿을 수 없다(『삼국사기』 권32).

이에 비해 『삼국유사』 기이편의 만파식적조는 ‘대왕신앙’의 俗說이 그럴싸하게 史實처럼 꾸며져 있다.<sup>48)</sup> 이를 믿기게 하기 위하여 문무왕대에 왜적이 근심거리였다는 배경설명을 하고 있지만, 674~675년경 신라가 해안을 봉쇄하자 왜는 양자강 이남의 明州·越州를 경유하여 당나라에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9)</sup>

48) 신종원, 앞의 책, 2008, 제4장 2절 「문무왕」.

49) 新羅梗海道 更繇明越州朝貢(『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전 일본)

앞 시대에 불리어지던 노래에 대하여 그 작곡배경이라고 말하는 史書의 기술은 대개 迂遠하여 노래 자체와 그리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는 노래에 어울리는 ‘史實’을 꾸며낸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한다. 아래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利見臺 : 세상에 전하는 말이다. 신라왕 부자가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그 때 臺를 신축하고 서로 만나 부자간의 기쁨을 다하고, 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臺는 이견대라고 이름 지었다. 이는 대개 『주역』의 ‘利見大人’에서 취한 뜻일 것이다. 왕의 부자가 서로 갈릴 리가 없는데 혹 이웃나라에서 만났거나 혹은 볼모로 이들을 보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고려사』권71, 약지2)

저명한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서는 효소왕이 바다의 용이 된 아버지 문무왕을 보았던 곳으로 ‘이견대’가 나온다. 작곡 배경이 史實에서 비롯된 듯한 설명은 堤上傳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우식악이라는 음악이 먼저 있고, 그 음악의 창작배경으로서 두 왕자의 인질 사건이 이야기된다. 이렇듯 신라 왕족의 이산·재회에 관한 이야기는 드물지 않은데, 그 배경 설화가 말하는 인물이나 시대가 모호한 때문인지 이견대와 우식곡 두 음악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50)</sup>

이제 후일담을 볼 차례다. 1차 증거물이라 할 우식악은 연주 시기가 한정되어 있으며, 왕조가 바뀔에 따라 점차 희석되어 가고,<sup>51)</sup> 눈에 보이는

50) “<이견대>는 오래 못 보아 그리던 신라왕 父子가 이견대에서 재회하여 기쁨을 노래한 것이니, 아마 上段 놀지왕의 <우식곡>의 別傳일 것이오.” 양주동,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1968, 29쪽.

51) 이 노래는 가사는 잊혀진 채 연주만 조선 세종대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이제 玄琴에 소속된 것으로 말씀드리오면, 그 타는 법은 알면서도 歌詞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嗶子啄木·憂息多手喜·清平居士戀 등이 이것이옵고,” (『세종실록』 47권, 12년, 서기 1430, 2월 19일, 경인). “嗶子調…俗稱 河臨調라는 것이다. 憂息調도 이와 같다.”(『악학궤범』 7권, 鄉

증거 神堂이 새로운 증거물이 되어 전설의 무게중심은 堤上妻 쪽으로 넘어 온다. 현재는 長沙 등 지명이 주요한 증거물이 되어 있지만, 울부짖던 부인이 치술령으로 올라갔다 함은 한편 치술령에 神母그림(堂神圖)이 있어서 나온 이야기다.

신당 이전의 神格은 다름아닌 巨石(→望夫石)으로서<sup>52)</sup> 결국 돌이라는 自然神이 신당의 무녀도로 발전한 것이다.<sup>53)</sup> 이렇게 보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는 이미 치술령에 예비되어 있으며, 그 주인공이 어느 때의 누구인가에 따라 그것은 어느 마을 민담의 증거물이 될 수도 있고, 숭고한 역사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sup>54)</sup> 같은 말이 되겠지만 이러한 ‘이야기 對 역사’, ‘증거물 對 사적’의 차이에 따라 話者는 흔한 이야기꾼(storyteller)이 될 수도 있고, 숭고한 과거를 기억시켜주는 역사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의 미부여라는 설화의 속성상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호하게 마련이며, 그것도 일개 전설 차원이 아니라 역사상의 극적 장면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웃나라로 흩어졌던 형제들이 곡절 끝에 만나게 되려면 그 전제는 고구려에 간 복호에 더하여 미사흔 또한 倭에 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치술령을 비롯하여 울포<sup>55)</sup> 등이 모두 동해에 沿한 지역이므로 볼모의 對象國

部樂器圖說)

- 52) 俞好仁의 다음 詩가 참고된다. “鶉述峯頭三丈石 愁雲猶帶望夫魂”(『신증동국여지승람』권21, 경주부, 雜詠)
- 53) 경북 상주시 만산리의 거석과 성황당이 참조된다. 김기탁, 「천황산의 성황사」 『상주 민속문화의 이해』, 민속원, 2003. 神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이관호, 「마을신앙 대상물로서의 神體의 유형과 특징」 『생활문화연구』21, 국립민속박물관, 2007.
- 54) 비슷한 예로는 雲帝山의 聖母가 곧 남해왕의 妃 운제부인이라고 하는 『삼국유사』기이, 남해왕조를 들 수 있다.
- 55) 나중에 ‘東津’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東津縣 本栗浦縣(『삼국사기』권34, 지리지). 울포는 고려시대 이후 ‘柳浦’로 이름이 바뀌어 堡를 설치했는데 그 유적을 찾은 결과 울주군 강동면 정자리가 그곳이라고 한다. 『박제상사적조사보고서』, 한국고원대학고박물관, 1987, 54~55쪽. 東津에 대해서는 濱田耕策의 「新羅時

으로는 倭가 안성맞춤이다. 우식악은 ‘근심이 가신(떠난) 음악’이니 그 근심은 클수록 호소력이 있다. 미사흔의 渡倭를 상정하지 않으면 형제간의 재회를 그린 憂息樂의 창작 이유는 반감된다.<sup>56)</sup> 우리는 앞에서 신라의 對倭 인질이 여러 모로 不整合性を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것은 憂息樂의 작곡 배경을 꾸미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憂息樂의 존재야말로 미사흔의 渡倭를 증명해주는 설화상의 증거물이다.

여기에서 신공황후 5년조의 毛麻利叱智 기사를 보고자 한다. 이것이 堤上 사료 가운데 가장 원형에 가깝다고<sup>57)</sup> 함은 일리가 있다. 그 이유로는 사신의 이름이 실려 있는 점과 설화 부분이 비교적 적다는 것을 들고 있지만 이러한 단순비교의 위험도 없지 않다. 편년체의 『일본서기』와 열전 형식의 堤上傳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또 『일본서기』에 비해 고려 중·후기에 편찬된 역사책의 출현시기도 毛麻利叱智 기사에 우위를 말해주지만 제상전에는 그의 직명이 남아 있다. 毛麻利叱智 기사에서는 일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堤上의 在倭 사적만 실려 있는데, 그의 주된 공적은 오히려 對高句麗 활동에 있다.

堤上의 在倭活動과 관련하여 특히 그가 사망한 지역이 羈家臺, 즉 오늘날의 일본 福岡縣 博多이며, 더 정확히는 冷泉津 七里灘이라는 전승이 남아 있음에도<sup>58)</sup>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음은 너무 신중하고 부정적 태

代の港町 - 東津と t 西津を中心に」라는 발표가 있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0년 12월).

56) 이때의 근심이란 아우들의 귀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정치적 불안의 의미도 있다고 본다. 권영호, 「삼국사기·삼국유사 비교 소론 - 박제상전과 나물왕김제상을 중심으로」 『신라학연구』5, 2001, 110쪽.

57) 木下禮仁, 「五世紀以前の倭」 『日本書紀と古代朝鮮』, 塙書房, 1993, 339쪽 ; 木村誠, 앞의 책, 2004, 322쪽.

58) 조선시대에 일본에 통신사로 간 사신들의 기행문인 海槎錄, 海槎日記 등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재영, 「박제상 설화」 『한국설화문학연구

도라고 할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국 진시황제 시절 불노초를 캐러 바다로 떠났던 徐市 故事에 견주어 볼 만 하다. 韓·中·日 삼국의 기록에 모두 나오고, 그 유적지라고 하는 곳이 여럿 있음에도 서불사적은 여전히 허구의 차원으로 평가되고 있다.<sup>59)</sup>

堧上 부인이 倭國으로 가는/간 郎君을 바라보며 통곡하였다는 것은 박제상전과 김제상조가 일치하는데, 이 기사가 암시하는 증거물은 지명 栗浦다. 제상이 두 번째로 간 나라는 국경을 맞댄 고구려나 백제가 아니라 바다 건너 왜국이 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동해에 접한 항구가 제격이다. 김제상조의 후일담에서는 제상의 부인이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鵝述神母가 되었다고 하니, 울포만 가지고는 부부의 생이별을 증거하기에 부족하였던 모양이다. 치술령에 있는 사당<sup>60)</sup> 이야말로 김제상조에서 強辯하는 또 하나의 증거물로서, 김제상조의 후일담은 堧上渡倭說의 보강이요, 설화 논리상의 발전이다.<sup>61)</sup> 사당이 퇴락한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는 사당을 대신하여 망뚫돌이 제상부인의 증거물로 기록되었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점차 또 다른 증거물로 보강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여 둘 것은 이러한 인위적

구』(3판), 숭실대학교출판부, 1984·1997에 소개된 바 있다. 다음 논문도 참고가 된다. 藤井甚太郎, 「新羅朴堧上死處の傳説に就きて」, 『歴史地理』26-1, 1915.

59) 遼志保, 『徐福論, いまを生きる傳説』, 新典社, 2004 ; 신종원, 「이른바 ‘서불석각’의 실체와 서불전설의 의미」 『한국 해양신앙과 설화의 정체성 연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9.

60) 현재 치술령 꼭대기 사당터에 「神母祠址」라고 돌로 새긴 신주를 세워놓고 있다. 이 터는 1971년 한국일보가 주관한 동해안 학술조사단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당시 신라토기를 비롯하여 고려토기, 조선시대 기와조각, 엽전 등이 많이 발굴되었다.

61) 소재영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삼국사기는 우석악이 전하여지는 연유를 중심으로 논술되어 있고, 삼국유사는 치술신모의 사당에 전하는 전승설화 중심”. 앞의 책, 1997, 133쪽.

논리보강에도 이들 상호간의 충돌은 숨길 수 없다는 점이다. 堤上夫人이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한 지점이라면 당연히 울포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지만 치של령은 부부의 이별 지점과 별도의 위치에 있다. 지금까지 對倭 인질이라는 데 韓日 학계가 과도한 비중을 두었는데, 그 실상은 오히려 이러한 설화상의 문제에 걸려 있다.

바닷가의 巨石이 어느새 망뚱돌이 되고, 그 남편은 전쟁터나 敵國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드물지 않다. 부산 태종대의 망부석은 왜구에 잡혀간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고 하며, 충남 서산군 안면에 있는 할미바위는 청해진의 책임자 성언(승언)장군이 출정하여 돌아오지 않자 이 바위에서 죽었다는 지명유래가 그러하다. 이들 설화는 일찍이 기록된 바 없고 현재 구술되는 내용으로서 망뚱돌설화의 생성을 실시간으로 보는 듯하다.

치של령은 경주의 동남쪽에 있는 고개로서 울산과 경계를 이룬다. 사당터는 산꼭대기에 있고, 그 조금 아래 망뚱돌이 둘 있는데 각각 경주시와 울주군의 행정구역에 속한다.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구역의 것이 전설상의 망부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년에는 제3의 설도 대두된 바 있다.<sup>62)</sup> 그런데 여기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sup>63)</sup> 따라서 후일담을 두고 말

62) “여기서 망부석을 제1, 제2라고 칭하는 것은 편의상 필자가 붙인 명칭인데 처음에는 金校夫人이 이 제1망부석에서 동해를 바라보다가 좀더 동해를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찾아 정상 넘어 제2망부석에 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박제상사적조사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1987, 69쪽).

63) “필자(권영호)가 답사해본 적이 있는데 현재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권영호, 「박제상 전승의 양상과 의미」 『어문학』25, 2002. 필자(신종원)도 답사하여 사진과 대담을 보고서에 실어두었지만(『한국 해양 및 도서 신앙의 민속과 설화』 현지조사 1 동해안,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9, 353~359쪽) 바다가 보인다고 함은 과장이라 하겠다. 한편 바다에 인접한 지역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이도 있다. “이 바위(망뚱돌)에서 동해를 바라보면 맑은 날에는 동해가 굽어 보인다.”(위 『박제상사적조사보고서』, 70쪽).

한다면 왜국은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대상이다.

후일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김제상의 부인은 망북돌에서 떨어져 새(鳥)로 환생하여 隱乙巖<sup>64</sup>)에 숨었다고 한다. 이 巨石과 영험담에 기대어 암자 隱乙庵이 지어졌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줄거리는 박씨 家乘에도 적혀 있다.<sup>65</sup>) 이 모티프도 실은 지명에서 나온 것으로서 치술령은 俗稱 ‘술기재’요, 그 이전 말은 ‘수리’라고 한다.<sup>66</sup>) 한자 ‘鶻’는 ‘술개 치’이므로 ‘술기’는 ‘술개’에서 나온 말일 것이며, ‘수리’ 또한 술개와 같은 猛禽類다. 그런데 ‘山’ 또한 ‘述’이므로<sup>67</sup>) 산신 치술신모는 새가 될 소지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 새가 은을암에 숨었다 함은 이미 치술령의 신당도 廢絶된 이후 그 산신의 보금자리가 은을암으로 옮겨간 것이니 증거물의 置換인 셈이다.

신당이나 망북돌·은을암 모두가 치술령을 벗어나지 않는다. 堤上妻를 부각시키는 데는 이미 都城의 증거물인 지명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제상의 행적과 짝하는 부인이라면 적어도 치술령같이 언제나 坐定하고 있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설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든 堤上夫人은 치술령 산신의 권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곳은 對倭 교류의 통로이므로 설화는 더욱 사실적으로 되고, 망덕사 등의 증거물은 점차 이야기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은을암에 대한 위의 지명유래도 실은 박제상 사적이 널리 알려지고 주변에 박제상 사당과 神母祠 등이 세워지면서 굳어진 이야기다. 은을암이

64) 새[乙]가 숨었다[隱]고 그 이름을 풀이한다.

65) “鶻述鳥 入巖窟因號隱乙巖 王聞之感而作隱乙庵”(위 『박제상사적조사보고서』, 75쪽).

66) 『한국구비문학대계』7-2, 월성군 외동면 설화 85, 1980. 1936년 최상수의 채록(『한국민족전설의 연구』, 1988, 143쪽)에는 ‘수릿재’라고 하였다.

67) 예컨대 경주의 西岳은 西述이라고 『삼국사기』제사지, 小祀조에 나온다. 이밖에 『신증동국여지승람』권21, 경주, 산천 및 사묘조 참조.

있는 산봉우리는 ‘국수봉’인데 한자표기는 각양각색이며, 흔히 ‘국사봉’으로도 일컬어지는 국사 信仰處다.<sup>68)</sup> 그러므로 원래 높은산의 聖所로서 거기의 바위를 ‘은을암’이라고 하였다. 이 국수봉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sup>69)</sup> 은을암의 ‘쌀바위’ 전설이 있다.

은을암을 짓기 전, 옆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수양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바위가 있었고, 바위 아래 구멍에서는 날마다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의 쌀이 나왔다.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은 이 쌀로 연명하면서 수도를 했다. 그러나 구멍이 크면 쌀이 더 많이 나올 것이란 욕심에서 구멍을 후벼꿨더니 쌀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물이 쭈쭈 흘러나왔다. 그 뒤 세 세 마리가 물 속으로 들어갔고, 이로 말미암아 이곳에 절을 지으면서 은을암이라 이름했다.<sup>70)</sup>

후일담에서는 김제상의 부인이 새로이 부각되었다고 하였는데, 구전 설화에서 박제상은 나라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는 불특정 인물로서 이상적 충을 강요받아 희생당하기만 하는 민중의 남편 곧 설화 담당층 자신으로 변해간다.<sup>71)</sup>

증거물의 置換은 (망뚝돌) → 치술령사당 → 망뚝돌 → 은을암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우식악이 조선시대 어느 때 滅失된 이후 새로이 ‘鵝述嶺曲’이 등장하였다. 『증보문헌비고』 俗部樂에는 박제상부인이 남편을 그리다 신모가 된 사적을 적은 뒤 ‘東都樂府有鵝述嶺曲’이라고 썼다. 적어도

68) 김태곤, 「국사당신앙연구」 『백산학보』8, 1970 ; 신종원,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해제」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연구』, 경인문화사, 2010, 36~37쪽.

69)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禾岩寺의 禾岩[수마위]도 쌀이 나왔다는 쌀바위 전설이 있으며, 옛적 이 바위에서 나온 밀가루로 국수를 해먹었다는 국수를 이야기도 전해온다. 신종원, 위의 책, 2010, 44~45쪽 참조.

70) 서영대, 「울산지역의 사찰설화」 『울산연구』3, 2001, 95쪽.

71) 권영호, 앞의 논문, 2002, 103~104쪽.

19세기 즈음에는 치술령곡이 존재하였다. 이 노래의 가사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데 현재 울산·울주지방의 민요에 남아 있다. 아래에 치술령가를 실어둔다.

『치술령가』

어화 세상사람들아 / 이내말씀 들어보소 / 옛날옛적 박제상 어진양반  
/ 나라위해 충성으로 / 일본국에 들어가시고 / 그의아내 열녀로서 / 치술  
령 상상봉에 불철주야 바위에서 망부하니 / 그바위 망부석이 되었구나  
/ 또다시 대마도를 바라보고 / 바위에서 떨어지니 / 새가되어 날았으니  
/ 그마을이름이 비조가 되었구나 / 국수봉 상상봉에 숨어드니 / 그이름  
은을암이더라. 72)

우식악이 사라진 상태에서 치술령곡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역시 노래 속의 주인공은 설화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박제상의 부인이 될 수밖에 없다.

#### IV. 堤上傳의 생성과 발전 - 결론을 대신하여

역사상의 堤上 또는 堤上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上代 신라 지방출신으로서 國政에 많은 활약을 하였을 것이다. 그는 對外關係에서도 고구려에 불모로 잡힌 왕자를 데려오는 일에 혁혁한 功을 세웠다. 이후 이러한 사정과 왕실 가족의 相逢을 기리는 이야기와 歌舞가 널리 퍼졌을 것이며, 이 음악에 대한 해설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의 활약이 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후일담의 성격을 띠는 치술령의 사당은 堤上傳에 그 부인의 烈

72) 울산대인문과학연구소 편, 『울산·울주지방의 민요자료집』, 울산대출판부, 1983, 555~556쪽.

女像이 가미되는 자료를 제공하기에 이르고, 현재 전해지고 있는 口傳에는 堧上妻의 영혼이 隱乙庵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堧上 사료는 역사상 어떤 사건과 인물이 실마리가 되어 한 편의 서사 문학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堧上傳이 역사에서 설화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이라면 그 逆으로 지명·巨石·사당·암자 등의 유래가 역사에 끼어 들어가 한 편의 사료로 거듭나기도 한다. 말하자면 각각 ‘史實의 敷衍’이요, ‘증거물의 背景史’다.

이 글에서 필자는 堧上 事蹟의 증거물로 형제간의 재회를 노래한 憂息樂을 가장 크게 꼽았다. 그 근심이란 신라 왕자가 이웃나라에 볼모로 간 것인데 그러한 슬픔을 강조하자면 볼모로 간 나라가 많을수록 좋다. 이러한 설화의 논리에서 미사흔[미해]의 왜국과전 모티프가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堧上妻의 슬픔도 지아비를 쫓아갈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이 되어야 하겠기에 울포에서 치술령으로 증거물이 발전되어, 치술령에서 바다를 쳐다보며 왜나라로 간 지아비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史書와 구전에 전하는 堧上傳의 발전은 지금까지 분석한 단계로 단락 지워지며, 각 단계마다 내세우는 증거물도 달리 나타남을 보는 것은 흥미롭다.

堧上의 對倭 인질 사료에는 의외로 상호 충돌되거나 순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이 적지 않다. 그것은 당시 對倭 관계의 실상을 벗어나 한 인물의 공적을 선양하고 忠烈 정신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堧上傳을 당시의 사료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역사와 설화가 錯綜된 사료에서 史實을 찾아가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것은 쌍방이 영향을 주어 서로 닮아가다가 하나의 훌륭한 서사적 구조로 완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史實追跡 작업은 이 완결된 사료 속에서 먼저 不整合性/斷絶性을 찾는 작업이다.

## 【참고 문헌】

### 1. 저서

- 김재원, 『호우총과 銀鈴塚』, 국립박물관, 1948.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吉川弘文館, 1962.  
양주동,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1968.  
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고대편)』, 일조각, 1982.  
울산대인문과학연구소 편, 『울산·울주지방의 민요자료집』, 울산대출판부, 1983.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1)』, 일지사, 2004.  
達志保, 『徐福論, いまを生きる傳説』, 新典社, 2004.

### 2. 연구 논문

- 藤井甚太郎, 「新羅朴堤上死處の傳説に就きて」 『歴史地理』26 - 1, 1915.  
김태곤, 「국사당신앙연구」 『백산학보』8, 1970.  
小倉芳彦, 「中國古代の質 - その機能の變化を中心として」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青木書店, 1970.  
김용선, 「박제상 小考」 『전해중 화갑기념 사학논총』, 일조각, 1979.  
양기석, 「삼국시대 인질의 성격에 대하여」 『사학지』15, 1981.  
이종향, 「미사흔이 인질로 간 倭國의 위치에 대하여」 『한국학논총』4, 1981.  
村上四男, 「堤上傳をめぐって - 新羅の建國初期における對外關係の一齣」 『한국문화』4 - 12, 1982.  
소재영, 「박제상 설화」 『한국설화문학연구』(3권), 숭실대학교출판부, 1984·1997.  
홍순창, 「김제상설화에 대한 일고찰」 『한국전통문화연구』2, 1986.  
木下禮仁, 「堤上傳承考」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井上秀雄, 「삼국유사와 일본 관계」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直木孝次郎, 「古代朝鮮における間諜の性格」 『古代日本と朝鮮・中國』, 講談社學術文庫, 1988.  
연민수, 「5세기 이전 신라의 대외 관계 - 삼국사기 왜 관계 기사를 중심으로」

『일본학』8·9, 1989 : 『고대한일관계사』, 1998.

김택균, 「삼국사기 신라의 대외관계기사 분석」 『강원사학』6, 1990.

木村誠, 「新羅國家生成期の外交」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1(荒野泰典 編), 東京大學出版會, 1992 ;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 2004.

나행주, 「고대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質’의 의미 - 특히 質의 파견목적을 중심으로」 『건대사학』8, 1993.

木下禮仁, 「五世紀以前の倭」 『日本書紀と古代朝鮮』, 1993.

木下禮仁, 「五世紀以前の倭」 『日本書紀と古代朝鮮』, 塙書房, 1993.

고관민, 「新羅의 堤上奈麻と奈勿王三子」 『東アジア研究』9, 1995 ; 『三國史記의 原典的研究』, 雄山閣, 1996.

선석열, 「박제상의 出自와 관등 나마」 『경대사론』10, 1997 : 「삼라군 태수 박제상의 애국 활동」 『2012년 학술대회, 양산과 박제상』, 양산시, 2012.

김기덕, 「고려시대 성황신에 대한 봉작과 순창의 ‘성황대신사적’ 현판의 분석」 『역사민속학』7, 1998.

주보돈, 「朴堤上和 5세기 초 신라의 정치 동향」 『경북사학』21, 1998.

권영호, 「삼국사기·삼국유사 비교 소론 - 박제상전과 나물왕김제상을 중심으로」 『신라학연구』5, 2001.

서영대, 「울산지역의 사찰설화」 『울산연구』3, 2001.

김기탁, 「천봉산의 성황사」 『상주 민속문화의 이해』, 민속원, 2003.

엄기영, 「삼국사기·삼국유사 所載 ‘박제상 이야기’의 비교 고찰」 『한국문화이론과 비평』19, 2003.

엄기영, 「‘박제상 이야기’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39, 2003.

Chizuko T. Allen, Prince Misahun : Silla's Hostage to Wan from the Late Fourth Century, Korean Studies 27, 2003.

장창은, 「신라 눌지왕대 고구려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33, 2004.

木村誠, 「新羅國家生成期の外交」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 2004.

이강래, 「삼국사기의 왜 인식」 『한국사상사학』22, 2004 ; 『삼국사기 인식론』, 일지사, 2011.

신현웅, 「박제상의 出自와 신분 문제」 『신라문화』27, 2006(a).

신현웅, 「박제상의 出自와 신분 문제(續)」 『신라문화』28, 2006(b).

이관호, 「마을신앙 대상물로서의 神體의 유형과 특징」 『생활민물연구』21, 2007.

- 신종원, 「설공검 - 순창의 성황대왕」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 신종원, 「이른바 ‘서불석각’의 실체와 서불전설의 의미」 『한국 해양신앙과 설화의 정체성 연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9.
- 신종원,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해제」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연구』, 경인문화사, 2010.
- 조한정, 「박제상과 5세기 초 신라 정치」 『동아시아고대학』25, 2011.
- 채미하, 「埤上の 미사흔 구출 과정을 통해 본 신라의 對倭 관계」 『신라사학보』 25, 2012.
- Chizuko T. Allen, Silla's Skillful Diplomacy under King Nulchi in the Fifth Century, The 6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2.

### 3. 기타

-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박제상사적조사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1987.
- 국립중앙박물관, 『호우총 은령총, 발굴60주년 기념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6.

Abstract

## On the Biography of Bak(or Kim)jesang and Wa state—focusing on the Background of the Song Entitled Usikak

Shin, Jong-won

The biography of Bakjesang, given originally in the Samguksagi and the Samgukyusa, has been handed down through centuries as the tale of an ideal loyal subject of the Silla period. The story is as follows. When Bokho and Misahun, two younger brothers of King Nulji(417~458), were taken hostage to Goguryo and Baekje respectively, Bakjesang used his wit and succeeded in securing their return to Silla. Subsequently he was killed in Wa (a generic term referring to Japan). King Nulji threw a banquet to celebrate the return of his brothers and composed a poem, entitled "Usiknak" (Lament - ceasing Song) on the occasion. It is said that Bakjesang's wife waited for her husband with such intense ardour that she ultimately turned into a stone.

Although historical evidences confirm that Silla sent hostages to Goguryo, it seems improbable that Silla sent hostages to Wa, because Silla and Wa were not bound by close diplomatic and military ties, and furthermore, Wa was not a powerful state in the 5th century. Besides, Bakjesang's cleverness and heroic deeds notwithstanding,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Bakjesang succeeded in securing the release and return of

two Silla princes in the same year(418 or 425).

As the tales of Bakjesang were transmitted orally and form a part of Silla's folk lore, the relevant texts in the Samguksagi and the Samgukyusa contain several discrepancies and differences. This means that these texts developed a simple incident or event into a full - fledged historical narrative. Oral traditions created fictionalized version of the simple event in order to explain why the stone stood there and why king Nulji wrote the song "Usiknak".

A critical analysis of the materials about Jesang reveals that the account about his appointment as an envoy to Wa lacks credibility. This story seems to have been fabricated with a view to augment the sorrow of King Nulji who separated from his younger brother Bokho at the time he was dispatched to Goguryo as a hostage.

Key Words : Bakjesang, King Nulji, Bokho, Misahun, Usikak, hostage, Wa, historical narrative, oral tradition, fictionalized version

논문 투고일 : 2013. 8. 7

심사 완료일 : 2013. 8. 10

게재 확정일 : 2013. 8. 12